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서 현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 유형 분석

2010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전나령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 유형 분석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전나령

인 준 서

전나령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 유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의 정치참여는 필수요소이며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초석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참여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와 비교해 개인적 및 집단적 의사표현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달리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선거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거참여에 만족할 뿐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력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표를 선출하거나 중요한 공공문제의 결정에 관해 이렇다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불리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정책결정이 국가의 권위를 빌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이고,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교교육은 정치적 태도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정치교과는 정치참여를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적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교육은 정치교과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교육되고 정치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학습 자료들은 정치교육의 도구로써 정치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 가지 자료 중 삽화는 훌륭한 자료와 내용의 기능을 제시하는 학습 요소로서 시각적인 효과가 크며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234개의 정치참여 삽화 중 선거형은 23.5%, 접촉형은 17.5%, 항의형은 59.0%로 정치교과서는 항의형 중심의 편향된 정치참여유형을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각각의 정치참여유형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방법을 분석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선거형을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투표’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9.4%, ‘후보자로 출마’는 3.4%,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은 7.3%,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은 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접촉형을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공청회’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9.4%를, ‘공직자 접촉’은 1.3%를, ‘대중매체 접촉’은 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항의형을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시위·집회·파업’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53.0%를, ‘1인 시위’는 1.3%를, ‘서명운동·청원’은 4.7%를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 중 ‘항의형’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 밖의 다양한 정치참여유형의 삽화를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태도형성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교육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참여를 항의형 중심으로 인식하게 하여 그 외의 정치참여유형은 부수적이거나 예외적인 참여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항의형은 정부나 기업 혹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 성격을 가지며 때로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항의형에 관한 정치참여 삽화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를 활성화 시키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선거는 대의 민주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참여 방법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투표율이 곧 정치참여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 투표권만을 행사하며, 그 이후에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소수정치가들과 참여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투표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선거참여와 더불어 비선거 참여인 접촉형과 항의형의 정치참여가 정부의 일상적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민주주의를 넘어 심화되기 위해 앞으로 민주시민의 주역으로 성장 할 학생들에게 정치참여 유형을 다양하게 그리고 편중되지 않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1. 정치참여의 정의와 기능	6
2. 정치참여의 유형과 민주정치	8
3. 정치참여와 민주시민교육	11
1)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의 학교의 역할	11
2) 정치참여와 정치교과	13
4.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14
1) 정치참여와 민주정치	14
2) 정치참여와 민주시민교육	17
III.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20
1. 분석대상	20
2. 분석준거	20
1) 정치참여유형에 대한 삽화 구분방법	20
2) 정치참여유형 구분방법	23
IV. 주요 결과 및 논의	26

1. 정치참여 삽화의 수	26
2. 정치참여 유형별 분석	26
1) 선거형	28
2) 접촉형	33
3) 항의형	38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43
V. 결론 및 제언	47
1. 분석 결과의 요약	47
2. 제언	48
참고문헌	51
ABSTRACT	54

표 목 차

<표 III-1> 분석대상 정치교과서	20
<표 III-2-1> 밀브래스와 고엘의 정치참여 유형	23
<표 III-2-2> 버바와 나이의 정치참여 유형	23
<표 III-2-3> 어수영의 정치참여 유형	24
<표 III-2-4> 쿤틴의 정치참여 유형	24
<표 III-2-5> 정치참여 유형 분석틀	25
<표 IV-1> 정치참여 삽화의 수	26
<표 IV-2-1> 정치참여 삽화의 유형별 비율	27
<표 IV-2-2> 선거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28
<표 IV-2-3> 투표에 관한 삽화의 비율	30
<표 IV-2-4> 후보자로 출마에 관한 삽화의 비율	31
<표 IV-2-5>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	32
<표 IV-2-6>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	33
<표 IV-2-7> 접촉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34
<표 IV-2-8> 공청회에 관한 삽화의 비율	35
<표 IV-2-9> 공직자 접촉에 관한 삽화의 비율	36
<표 IV-2-10> 대중매체 접촉에 관한 삽화의 비율	38
<표 IV-2-11> 항의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38
<표 IV-2-12> 시위·집회·파업에 관한 삽화의 비율	40
<표 IV-2-13> 1인 시위에 관한 삽화의 비율	41
<표 IV-2-14> 서명운동·청원에 관한 삽화의 비율	42

그래프 목차

<그래프 IV-2-1> 정치참여 삽화의 유형별 비율	27
<그래프 IV-2-2> 선거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29
<그래프 IV-2-3> 접촉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34
<그래프 IV-2-4> 항의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39

그림 목차

<그림 1> 정치참여 삽화 잘못된 예시	21
<그림 2> 정치참여 삽화 잘못된 예시	21
<그림 3> 정치참여 삽화 올바른 예시	21
<그림 4> 정치참여 삽화 올바른 예시	21
<그림 5> 정치참여 삽화 올바른 예시	22
<그림 6> 정치참여 삽화 올바른 예시	22
<그림 7> 정치참여 삽화 올바른 예시	22
<그림 8> 정치참여 삽화 올바른 예시	22
<그림 IV-1> 투표에 관한 삽화 I	30
<그림 IV-2> 투표에 관한 삽화 II	30
<그림 IV-3> 후보자 출마에 관한 삽화 I	31
<그림 IV-4> 후보자 출마에 관한 삽화 II	31
<그림 IV-5>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에 관한 삽화 I	32
<그림 IV-6>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에 관한 삽화 II	32
<그림 IV-7>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에 관한 삽화 I	33
<그림 IV-8>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에 관한 삽화 II	33
<그림 IV-9> 공청회에 관한 삽화 I	35
<그림 IV-10> 공청회에 관한 삽화 II	35
<그림 IV-11> 공직자 접촉에 관한 삽화 I	36
<그림 IV-12> 공직자 접촉에 관한 삽화 II	36
<그림 IV-13> 대중매체 접촉에 관한 삽화 I	37
<그림 IV-14> 대중매체 접촉에 관한 삽화 II	37
<그림 IV-15> 시위·집회·파업에 관한 삽화 I	40
<그림 IV-16> 시위·집회·파업에 관한 삽화 II	40

<그림 IV-17> 1인시위에 관한 삽화 I	41
<그림 IV-18> 1인시위에 관한 삽화 II	41
<그림 IV-19> 서명운동·청원에 관한 삽화 I	42
<그림 IV-20> 서명운동·청원에 관한 삽화 II	4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민주정치는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체제이다.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와 선호를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참여는 시민과 정치인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이며 민주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초석이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정치참여인 선거참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먼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보면 13대(89.2%)부터 14대(81.9%), 15대(80.7%), 16대(70.8%), 17대(63.0%) 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도 13대(75.8%), 14대(71.9%), 15대(63.9%), 16대(57.2%)까지 투표율이 감소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6%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다시 46%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20대 유권자의 투표율이 저조하며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이 지극히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박병석, 2002). 또한 정치참여에 대한 국제연구 프로젝트인 비교선거제도연구 모듈2(2001-2006)에 따르면 신생민주주의는 물론 성숙한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37개국에서 지난 5년간 공무원 또는 정치인에 대한 접촉경험은 12.4%, 공동관심사를 위한 집단행동 경험은 17.2%였으며, 항의 및 시위참여 경험은 10.1%에 달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모두 10%미만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박종민, 2008).

이와 같이 민주화 이후 정치참여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와 비교해 개인적 및 집단적 의사표현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달리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선거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거참여에 만족할 뿐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거는 대의 민주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참여 방법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투표율이 곧 정치참여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 투표권만을 행사하며, 그 이후에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소수정치가들과 참여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투표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선거참여와 더불어 비선거 참여인 접촉형과 항의형의 정치참여 또한 정부의 일상적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력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표를 선출하거나 중요한 공공문제의 결정에 관해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불리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정책결정이 국가의 권위를 빌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치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면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참여 민주주의이다. 참여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정치권력의 독점이나 남용을 막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어슨과 브라운(Gearson & Brown)은 참여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참여는 민주시민성 교육의 핵심이며, 민주시민성을 위한 단순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국가교육과정 그 자

체의 기초가 되는 원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리머만(Rimmerman)은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유명철, 2007). 특히 청소년기 정치교육은 차후 성인이 된 후 정치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교육 수업을 많이 수강한 학생일수록, 다양한 정치적 지식과 자원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참여율도 높다는 것이다(서현진, 2005).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 중인 한국사회에서도 실질적인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을 통해서 정치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민주적인 정치사회에서는 국민의 능동적인 정치참여가 정치과정의 출발임을 이해하여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갖도록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01). 특히 정치교과는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과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과목으로 정치참여를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중·고등사회과 정치단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교육되며 교과서 정치단원에 수록되어있는 학습 자료들은 정치교육의 도구로써 정치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 가지 자료들 중 삽화는 훌륭한 자료와 내용의 기능을 제시하는 학습 요소로서 시각적인 효과가 크며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유수경, 2007). 따라서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이 편중되어 있다면 가치관이 형성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참여는 일정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미래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삽화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시민의 정치참여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민주정치란 허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도 민주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정치참여의 문제는 학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치교과서 삽화에 제시된 정치참여유형은 민주 시민의 주역으로 성장 할 학생들에게 투영되어 정치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정치참여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제 7차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의 비중은 어떠한가?
정치참여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정치참여의 개념을 살펴본 후, 정치참여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문헌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정치참여와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관성을 주목한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교과서의 기능과 더불어 교과서에 제시되는 삽화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정치참여유형이 정치교과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치교과서 4종의 삽화 중 정치참여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를 모두 찾아내

어 분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교과인 정치교과에 한하여 검인정 4종의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 삽화 중 정치참여에 해당하는 삽화나 설명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만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밀브래스와 고엘, 버바와 나이, 어수영 등’의 연구를 참고·재구성하여 정치참여 유형 분석틀을 사용하였는데, 삽화로 살펴볼 수 있는 정치참여 유형을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치참여의 정의와 기능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개념이 흔히 그러하듯 정치참여라는 개념 역시 매우 논쟁적이며, 논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한국정치학회, 2008).

정치참여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개념의 범위에 따라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정치참여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정치의 일반이론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대표적인 개념정의를 한정하여 개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정치참여 연구의 선구자격인 밀브래스와 고엘(Milbrath & Goel)은 정치참여를 “정부의 정치를 지지하거나 이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 추구하는 일반 유권자의 모든 행동”라고 정의한다. 이는 정치참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정의로 제도적·비제도적, 개인적·집단적인 모든 정치행위뿐만 아니라 지지 동원적인 행동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유명철, 2007). 이러한 폭넓은 정의는 이스턴(Easton)이 제시한 체계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스턴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정치과정은 투입(input)·전환(conversion)·산출(output) 그리고 환류(feedback)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투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일반 국민의 요구와 지지이다. 결국 밀브래스와 고엘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의는 요구와 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턴이 말하는 투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공저, 2008).

정치참여 연구의 또 다른 권위자인 버바와 나이(Nie & Verba)는 정치참여를 “정부 공직자의 선출이나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반 유권자의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정의에서는 특정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행위는 정치참여에서 배제된다. 또한 불법적인 저항, 데모, 체제전복의 혁명과 같은 비인습적인 정치행위도 정치참여에서 배제된다. 이런 의미에서 버바와 나이의 정의는 극히 제한적 의미에서의 민주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홍득표, 2004).

정치참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로젠스톤과 한센(Rosenstone & Hansen)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참여는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가 곧 정부의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의는 앞에서 논의한 두 정의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의식적인 행동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밀블래스와 고엘의 정의보다는 폭이 좁지만, 불법적인 행동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버바 등의 정의보다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김욱,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시민들의 모든 행위를 정치참여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치참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기능을 정치참여 연구의 권위자인 버바와 나이(Verba & Nie)다음과 같이 설명한다(홍득표, 2004).

첫째,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민주적인 정치과정은 소수의 엘리트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통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참여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 민주정부의 실현이 가능하다.

둘째, 효율적인 정치참여는 시민에 의한 정치·사회 목표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의 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공감하여 지지를 보낸다면 간접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 의한 정치·사회 목표의 설정, 우선순위의 결정, 목표달성에 요구되는 자원의 배분 등 중요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정치참여는 시민과 엘리트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공식적 통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시민의 목표와 희망 그리고 기대를 정부에 공식적·합법

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정치참여는 국민의 의사가 정부에 전달되는 통로인 동시에 국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통로로도 기능한다.

넷째, 정치참여는 수단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치참여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있으나 국민의 의사가 투입되는 수단이 된다.

다섯째, 정치참여는 정부의 엘리트에 대한 국민의 요구나 그들의 지지 혹은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다. 또한 정치참여는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는 통로인 동시에 정부의 엘리트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정통성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반대 의사를 전달하여 공직의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섯째, 정부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참여는 정치인과 행정관료 등 정부의 정책결정가들에게 중요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대중 집회를 통하여 반대 여론을 형성하면 정부는 이를 재고하게 된다.

일곱째, 정치참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시민의 행동이다. 시민이 정부에 대하여 어떤 태도나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참여를 통하여 표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예를 들면 지역적인 소회의식이나 불만 등이 있어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생각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오늘날과 같은 대의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이다.

2. 정치참여의 유형과 민주정치

정치참여는 참여의 목적, 참여수단의 합법성, 참여의 성격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정치참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법 중의 하나는 인습적인 참여와 비인습적인 참여의 구분이다. 인습적인 정치참여란 투표, 정치토의, 선거운동에의 참여, 정당 가입 등 우리가 흔히 보는 정상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를 가리킨다. 이에 반하여 비인습적 정치참여란 청원, 시위, 파업, 정치적 암살 등과 같이 정상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라고 하기 어려운 정치참여를 가리킨다. 비인습적 정치참여는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고, 비합법적인 비인습적 정치참여에는 흔히 폭력행위가 수반된다. 비인습적 정치참여는 인습적 정치참여의 통로가 막혀 있거나 그것이 동원적 정치참여의 형태를 띠어 그 참여가 무의미할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인습적 정치참여가 대다수의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비인습적 정치참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공저, 2008). 즉 인습적 정치참여와 비인습적 정치참여의 분류는 정통성과 제도화의 수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정통성의 수준은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정통성의 수준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습적 참여와 비인습적 참여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컨대 서명이나 합법적 시위와 같은 행위는 과거에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를 인습적 참여로 이해할 것인지 비인습적 참여로 이해할 것인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위의 분류와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분류는 선거참여와 비선거적 참여의 구분이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일반 유권자의 참여 중에서 선거 관련 참여(투표, 각종 선거운동 참여, 선거자금기부 등)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자료도 가장 풍부하다. 반면 비선거적 참여는 선거 외에 모든 참여를 포함하는 여 집합적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접촉 등과 같은 접촉 참여와 시위 등과 같은 항의성 참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 참여는 인습적인 참여와

그리고 비선거 참여는 비인습적 참여와 상당부분 겹친다고 할 수 있다(김동근, 1996).

또 한 가지 분류는 참여 동기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의 구분이다. 소극적인 참여의 대표적인 것은 투표이며, 공직자 접촉, 청원서 서명, 각종 선거운동 참여¹⁾, 거리 시위, 파업 등 기타 대부분의 참여유형은 적극적인 참여에 속한다(김옥, 2007).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의 분류와 개념상으로 유사한 분류에는 자발적 참여와 동원된 참여의 구분이 있다. 자발적 참여란 참여의 주체 내부의 의지에 의한 참여를 의미하며, 동원된 참여란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 의해 동원된 참여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구분이 이론적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 한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치 하에서의 정치참여 연구에서는 물론 미국과 같은 민주적인 국가에서의 참여연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실제 대부분의 행동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둘을 경험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김옥, 1999).

또한 이러한 정치참여를 일종의 행동이라고 이해할 때 행동의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밀브래스와 고엘(Milbrath & Goel)은 크게 투표자형(투표를 통한 참여), 선거운동형(정치단체 활동, 후보자 지지, 정치자금 기부, 후보자로 출마 등 선거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의 참여), 지역사회활동가형(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참여), 공직자 접촉형(공직자를 직접 접촉하는 형태의 참여), 의사 전달형(시민과 정부 간의 언어적 상호교환 활동을 통한 참여), 항의자형(서명운동, 청원, 집회, 시위 등을 통한 참여)으로 분류하였다(유명철, 2007).

버바와 나이(Verba & Nie)는 투표, 선거운동(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정

1) 물론 서구 사회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선거운동 참여(선거유세 참여 등)는 적극적 참여라기보다는 돈으로 동원된 소극적인 참여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정수찬, 2005).

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기부, 선거관련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한 참여), 협력적 활동(정치단체 결성, 가입 및 활동, 지역사회문제에 연관된 단체 참여, 정치모임 참여 등을 통한 참여), 시민주도의 접촉(특정한 관심사에 대한 개인들의 행위로, 시민들 스스로 시기, 목적, 행위, 내용을 결정하는 참여)으로 분류하였다(박종민, 2008).

어수영(1986)은 투표형(투표행위), 선거 유세형(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른 투표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보 추구형(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치적 정보를 얻거나 교환하는 행위), 항의형(군중시위, 시가행진, 진정서 제출 등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참여에 대한 유형분류는 연구자의 이론적 관심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그리고 사회변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치참여 유형이 등장하고 항의형과 같이 예전엔 인정받지 못했던 정치참여 유형이 일상적인, 보편적인, 정상적인 참여 형태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치참여 유형을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민주주의의 주역으로 성장 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치참여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정치참여와 민주시민교육

1)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

정치참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투표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개

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러 민주국가의 경험과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정착되지 않는다(서현진, 2005).

즉 민주시민의식 또는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공고화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시민의식이나 정치문화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창출되거나 유지되며 정치적 태도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은 중요하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는 정치의식의 형성에 있어 교육만큼 강력한 변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교육을 더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정보와 지식, 더 높은 정치적 현실에의 참여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토론에 더 많이 참여하고 능동적이라고 하였다(홍득표, 2004). 이양우(2005)도 “학교의 정치교육환경이 청소년의 정치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춘수(2003)도 “정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적 지식이나 열정, 가치,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되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제도적 교육이 가장 체계적이고 중요하며 이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발전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교육은 민주적 가치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정치교육은 의도적·계획적으로 특정한 정치적 정향을 전달하여 정치 사회화를 주도한다. 윤용탁(1997)은 정치교육을 “인간이 전수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슬기롭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학습과정, 즉 공동체를 위한 교육이요 민주시민교육”이라 보았고, 이종렬(1996)도 정치교육을 “정치 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민주사회에서의 통치제도의 평가, 올바른 지식의 지성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논의의 교육이며 동시에 정치적 대화를 통해 정치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정치적 지식 습득과 민주시민성 육성에 있어서 학교 수업내용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정치교육 수업을 많이 수강한 학생일수록, 다양한

정치문제를 다루고 토론하는 수업을 수강한 학생일수록 정치참여에 필요한 지식수준이 높았다. 또한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등 민주적 교육환경과 참여경험은 차후 성인기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한다는 연구도 있다(서현진, 2005).

그러므로 학교는 민주적 시민양성과 정치참여에 필수적인 정치적 지식과 민주주의 이론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장이다.

2) 정치참여와 정치교과

교과서는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그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도구로, 한 국가의 공식적 이념뿐만 아니라 교육목표와 교육인적 자원부의 ‘교육과정’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교사의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 그리고 평가의 주된 근거 중 하나이며, 학생들의 학습활동의 주된 자료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 속에 반영된 문화적 가치 체계는 학생들의 신념과 지식 그리고 행동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채기범, 2004).

특히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 양성과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개설된 정치교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육되며, 정치교과에 수록되어있는 학습 자료들은 정치교육의 도구로써 정치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 학습 자료들 중 삽화²⁾는 훌륭한 자료의 기능, 내용의 기능을 제시하는 학습요소로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핵심 정보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습 내용의 구조화

2) 삽화(illustration)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문장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 내용에 관계되는 정경·인물 등을 묘사하여 글속에 삽입하는 그림을 말한다. 정완호(1993), 강호감(1993) 등의 연구에서는 시각자료 속에 사진, 삽화(그림, 도해), 도표로 나누어 포함시키고 있으며, 경지희(2006), 채기범(2004) 등은 3D는 제외한 사진, 그림, 만화, 도해를 삽화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삽화란 교과서의 시각자료 중 ‘사진, 그림, 도해, 만화’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를 도와준다(최진, 2008). 또한 교과내용과는 달리 집필진과 교사가 가르치기를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삽화를 통해 나타남으로써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은경, 2000), 학생들은 삽화를 먼저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삽화의 시각적 효과는 매우 크며, 때문에 이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유수경, 2007).

따라서 정치교과서가 편향된 정치참여 유형을 담고 있어 가치관이 형성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참여는 일정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경우 정치참여를 미래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교과는 앞으로 민주 시민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참여 유형을 편향되지 않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1) 정치참여와 민주정치

대부분의 정치참여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모형의 적합성, 그리고 정치적 태도와 신념 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참여 형태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요인과 정치적 태도와 신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종민(1994)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수집된 자료를 사용해 정치자원 이론에 기초하여 연령, 교육, 직업, 성별 등 사회경제적 조건과 심리적 자원인 정치적 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들 변수의 영향이 정치참여의 형태마다 상이하며 획일적으로 작용

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조사가 이루어진 1987년 한국인들은 정치자원이론이 주장하듯이 행동의 “난이도” 때문에 고학력일수록, 학생일수록, 남성일수록 높은 시위참여율을 보였다. 아울러 정치적 자신감을 반영하는 내재적 효능감은 “종교 혹은 사회단체에 호소하는 행동, 언론 기관에 전화 혹은 투고하는 행동 그리고 항의대회에 참석하거나 시위에 가담하는 행동”을 촉진하였지만 정부관서에 진정서를 내거나 정당에 호소하는 행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정치체제의 반응성”을 나타내는 외재적 효능감은 시민들의 불만을 감소시킴으로써 항의와 같은 비인습적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나아가 박종민(1995)은 동일 데이터를 이용한 또 다른 분석을 통해 높은 내재적 효능감과 낮은 내재적 효능감이 결합될 경우 항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체제에 대한 불만보다 항의의 잠재성에 더 큰 영향을 줌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항의가 예외적이기보다는 일상적인 참여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신진 외(2005)는 한국의 16개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정치참여를 순응적 유형(투표), 적극적 유형(선거운동), 항의적 유형(집단시위, 서명, 조례 및 감사청구, 해당기관에 대한 청원, 인터넷 민원, 공청회 참여)으로 구분하고 관심도, 효율성, 기여도, 지식도 등 네 가지 지표로 측정되는 시민의식이 항의적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높임을 보여주었고 항의적 정치참여를 관례적인 민주적 절차나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서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주민들이 선택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고학력, 30대와 40대의 연령층, 월 가계소득 200만원이상의 시민들이 항의적 정치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박찬욱(2005)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특징과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교육과 소득 수준으로 측정되는 정치자원과 정치적 효능감, 저연령, 진보적 이념성향, 단체가입 등이 진정과 탄원을 위한 서명, 불매운동, 기부

와 모금운동, 집회 및 시위, 공직자 및 언론 접촉, 인터넷 토론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를 촉진함을 보여주었다.

어수영과 곽진영(2002)은 1984년부터 1995년 사이 10년간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양상을 전국 규모의 모의 실증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정치참여를 투표형, 선거유세형, 항의형, 정보추구형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1984년 조사에서는 투표를 제외한 모든 참여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으나, 1995년 조사에서는 4개 유형 모두에서 남성과 여성의 참여 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축소양상에 있어서는 10년 전보다 선거유세, 정보추구, 항의활동에서는 여성의 참여는 증가한 반면, 남성의 참여는 축소되었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관련된 변화에 있어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2004)은 투표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정치적 대표로 선택해야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불신을 들고 있다. 특히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당선자가 활동하는 정치무대의 중요성이 작을수록 투표 참여율이 낮으며, 당선자의 정치적 중요성이 클수록 투표참여율도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즉 후보자들이 활동하는 정치무대와 당선자의 정치적 중요성에 따라 투표율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정희선(2004)은 경찰백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991~2002년 동안 집회 및 시위의 빈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녀는 1996년까지 감소하던 전국의 집회 및 시위가 1997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그 이유가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경찰대응 방식이 진압보다는 보호관리 형태로 변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최근에는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희봉(2005)은 2005년 서울과 전남 및 경북의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회 자본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 가운데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와 같은 “동질적” 집단 참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인

에 대한 접촉을 감소시키는 반면, 직능단체와 같은 “이질적” 집단 참여는 이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양수(2006)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1차집단(동창회, 향우회, 친목단체)과 2차집단(정당, 주민운동단체, 노조, 직업조합)소속 여부로 네트워크가 적극적 참여(정치인, 공무원, 언론기관 접촉) 및 항의적 참여(시위, 집회, 정치모임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기업, 방송국, 신문사, 금융기관 등 민간제도에 대한 신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사회자본의 일부로서 사이버 공동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역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송경재(2005)는 사이버 공동체에서 사회자본의 증가가 항의정치를 포함한 비선거적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었다.

2) 정치참여와 민주시민교육

고등학교 정치영역과 관련하여 정치참여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적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사회과교육협의회(NCSS)는 사회과의 기본목표를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적인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사회과의 학습의 성과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유명철, 2006).

이처럼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민주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면서 이완범(1996)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정치참여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교육과정들이 참여의 범위를 투표권에만 국한시켜 적극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준 것과 달리 6차 교육과정은 적극적이면서도 인습적인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민지(2005)는 정치참여 문제가 정치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가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6차 교육과정부터는 정치참여가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강조되었고, 정치참여 양상도 매우 달라지기 시작하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참여문제를 훨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명철(2006)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실에서 투표이상의 다양한 정치참여활동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치교과서를 인습적 정치참여유형에 따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학습내용을 심화학습지도해야 할 것인지 그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명철(2007)은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한 매우 적극적인 참여방식인 비인습적인 정치참여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며, 정상적인 참여형태가 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제7차 정치교과서에서도 정치참여 개념 학습지도시 인습적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비인습적 정치참여의 중요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홍득표 외(2007)는 “정치교과서 개선방안연구 ‘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의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정치교육 내용 및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참여 내용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사회교과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수경(2007)은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참여를 살펴본 결과 최근 여성의 지위나 교육여건, 제도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분야, 특히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의 엘리트 수준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미흡한 수준이었고, 남성은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삽화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소극적인 참여활동을 나타낸 삽화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에게 정치의 남성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적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므로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성 불평등 내용들의 수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진(2008)은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시민사회단체 활동유형과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유형 삽화는 전반적으로 시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동분야는 실생활 이슈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회교과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유형 삽화를 균형 있게 제시해야하며, 실생활 이슈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활동 삽화를 보다 비중 있게 다룰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정치참여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치참여와 민주정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었다. 그 연구들을 통해 사회변동은 정치참여의 유형이나 정치참여의 영향요인에 변화를 주고, 개인의 정치참여형태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 정치참여 유형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정치참여 유형이 교과서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편향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7년 12월에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에서의 심화선택과목으로 개발된 정치교과서 4종이다. 분석은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 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표 III-1> 분석대상 정치 교과서

출판사	저자	사진·삽화의 책임자
대한교과서(주)	최병모 외 5인	.
법문사	김왕근 외 4인	전은우 외 3인
(주)천재교육	강세중 외 5인	정용환 외 2인
(주)지학사	이승중 외 4인	.

2. 분석준거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참여유형 분석은 다음의 분석준거에 의해 살펴본다.

1) 정치참여 유형에 대한 삽화 구분 방법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삽화가 다양한 정치참여유형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삽화가 정치참여에 대한 내용인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참여에 대한 삽화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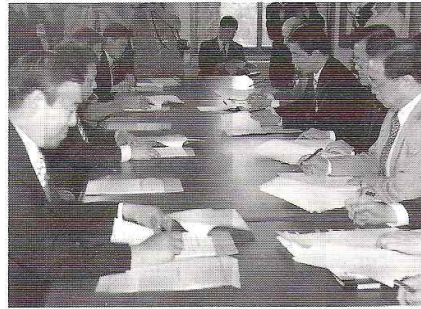
첫째, 정치참여는 국가의 구조나 국가 권위의 선출 또는 국가정책에 영향력

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하는 일반시민의 활동(홍득표, 2004)이므로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정치인의 정치활동 관련 삽화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국회 개원식

<그림 1> 지학사 28쪽



당정 협의회

<그림 2> 대한교과서 63쪽

둘째, <그림 3>처럼 삽화 제목에서 정치참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거나 <그림 4>처럼 삽화에서 직접 정치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삽화를 정치참여로 분석하였다.



서명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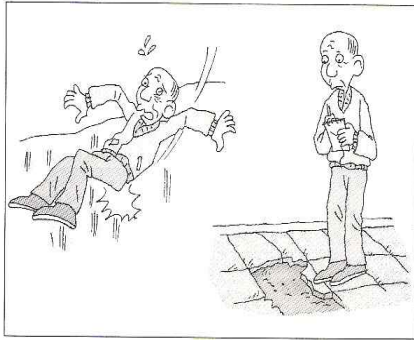
<그림 3> 천재교육 64쪽



<그림 4> 지학사 224쪽

셋째, <그림 5>, <그림 6>처럼 삽화에서 직접 정치참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원이나 삽화 밑에 제시되어 있는 설명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삽화를 정치참여로 분석하였다.



<그림 5> 지학사 128쪽



<그림 6> 천재교육 65쪽

다섯째, <그림 7>, <그림 8>처럼 삽화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정치참여에서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7> 지학사 228쪽



<그림 8> 대한교과서 206쪽

2) 정치참여 유형 구분방법

(1) 학자들의 정치참여 유형 분류

정치참여를 유형화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밀브래스와 고엘(Milbrath & Goel), 버바와 나이(Verba & Nie), 어수영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밀브래스와 고엘(Milbrath & Goel)은 정치참여유형을 크게 투표자형(voters), 선거운동형(campaigners), 지역사회활동가형(community activists), 공직자 접촉형(contacters), 의사 전달형(communicators), 항의자형(protesters)으로 나누고 있다(유명철, 2007).

<표 III-2-1> 밀브래스와 고엘(Milbrath & Goel)의 정치참여 유형

투표자형	투표를 통한 참여
선거 운동형	정치단체 활동, 후보자 지지, 정치자금 기부, 후보자로 출마 등 선거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의 참여
공직자 접촉형	공직자를 직접 접촉하는 형태의 참여
지역사회활동가형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참여
의사 전달형	시민과 정부 간의 언어적 상호교환 활동을 통한 참여
항의형	서명운동, 청원, 집회, 시위, 파업, 등을 통한 참여

버바와 나이(Verba & Nie)는 정치참여 유형을 투표(voting), 선거운동(campaign activity), 협력적 활동(cooperative activity), 시민주도의 접촉(citizen-initiated contacts)으로 분류하였다(박종민, 2008).

<표 III-2-2> 버바와 나이(Verba & Nie)의 정치참여 유형

투표	투표를 통한 참여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기부, 선거관련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한 참여
협력적 활동	정치단체 결성, 가입 및 활동, 지역사회문제에 연관된 단체 참여, 집단적 해결노력, 정치모임 참여 등을 통한 참여
시민주도의 접촉	특정한 관심사에 대한 개인들의 행위로, 시민들 스스로 시기, 목적, 행위 내용을 결정하는 참여

어수영(1986)은 정치참여유형을 투표형, 선거 유세형, 정보 추구형, 항의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표 III-2-3> 어수영의 정치참여 유형

투표형	투표 행위
선거유세형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른 투표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보추구형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치적 정보를 얻거나 교환하는 행위
항의형	군중시위, 시가행진, 진정서 제출 등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

또한 쿼틴(Quantin)은 선거참여와 비선거참여로 대별한 뒤 선거참여를 선거운동, 투표, 정당가입으로 나누었으며 비선거참여를 접촉, 집단활동, 항의로 나누었다(김동근 외, 1996).

<표 III-2-4> 쿼틴(Quantin)의 정치참여 유형

선거 참여	선거에의 투표, 선거운동 기간의 선거운동, 정당가입
비선거 참여	접촉활동, 집단활동, 항의

(2) 정치참여 유형 분석틀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분류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III-2-5 > 정치참여 유형 분석틀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선거형	투표
	후보자로 출마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
접촉형	공청회
	공직자 접촉
	대중매체 접촉
항의형	시위·집회·파업
	1인 시위
	서명운동·청원

IV. 주요결과 및 논의

1. 정치참여 삽화의 수

먼저 제 7차 정치교과서의 정치참여로 분석 가능한 삽화의 수를 살펴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삽화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정치참여 삽화의 수

교과서	삽화의 수
대한교과서(주)	65
법문사	31
(주) 천재교육	71
(주) 지학사	67
소계	234

정치교과서 4종에 제시된 정치참여 삽화의 수는 총 234개로, 천재교육 교과서가 가장 많은 삽화를 담고 있고 법문사 교과서가 가장 적은 삽화를 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정치참여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유형별로 어떠한 비중을 띠고 있는 지 살펴보려고 한다.

2. 정치참여 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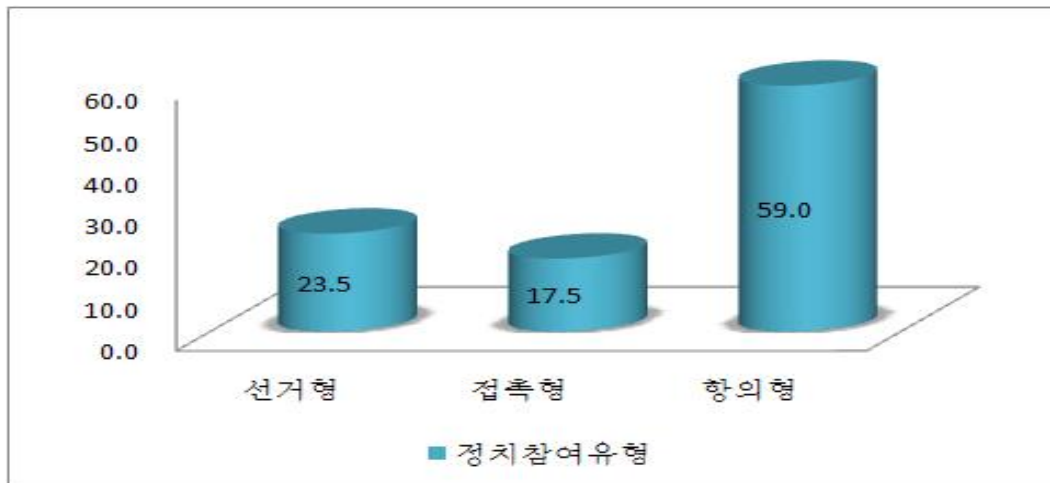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정치참여로 분석 가능한 삽화 총 234개를 바탕으로 <표 III-2-5>에서 제시한 정치참여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1> 정치참여 삽화의 유형별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선거형	투표	9.4 (22)
	후보자로 출마	3.4 (8)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	7.3 (17)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	3.4 (8)
소계		23.5 (55)
접촉형	공청회	9.4 (22)
	공직자 접촉	1.3 (3)
	대중매체 접촉	6.8 (16)
소계		17.5 (41)
항의형	시위·집회·파업	53.0 (124)
	1인 시위	1.3 (3)
	서명운동·청원	4.7 (11)
소계		59.0 (138)
총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그래프 IV-2-1> 정치참여 삽화의 유형별 비율

*단위: (%)

정치참여 삽화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정치참여 삽화 중 선거형은

23.5%, 접촉형은 17.5%, 항의형은 59.0%로 항의형 중심으로 편향되게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유형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거형

선거형은 선거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의 정치참여유형으로, 투표, 후보자로 출마,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 정당이나 정치단체 활동,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기부,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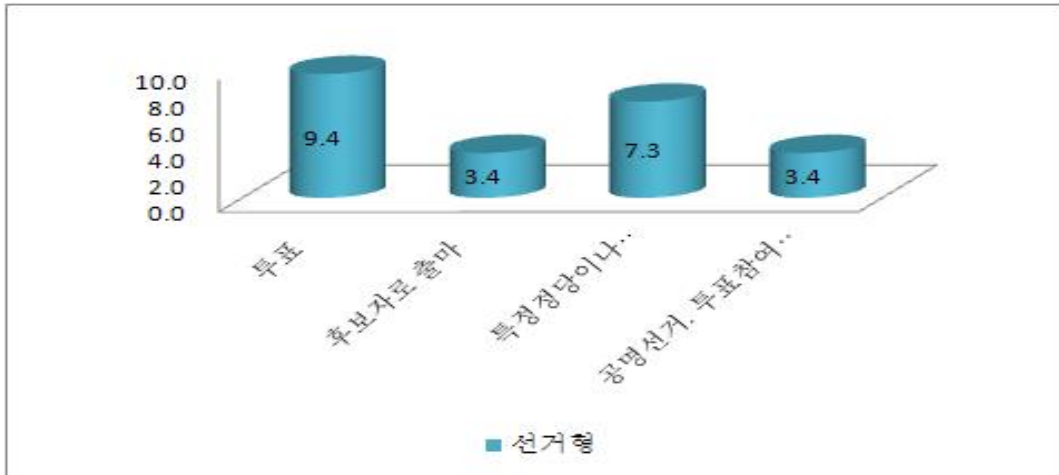
선거형을 <표 III-2-5>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2> ‘선거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선거형	투표	9.4 (22)
	후보자로 출마	3.4 (8)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	7.3 (17)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	3.4 (8)
소계		23.5 (55)
총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선거형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방법 중 투표가 전체 정치참여 삽화 수의 9.4%를, 후보자로 출마가 3.4%를,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이 7.3%를,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 IV-2-2> ‘선거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단위:(%)

(1) 투표

투표는 어떤 사항에 대한 시민의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체(국회 등)의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시민의 서면을 통한 의사표시(표결[票決])를 말한다.³⁾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며 필수요소이다. 또한 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호에 따라서 정권의 향배와 정책결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시민의 한 표는 정부나 정치인을 통제하는 가장 합법적인 절차인 동시에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www.naver.com 두산백과사전



<그림 IV-1> 지학사 46쪽



<그림 IV-2> 대한교과서 80쪽

투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3> '투표'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선거형	투표	9.4 (22)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투표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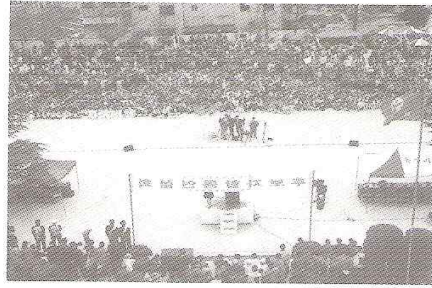
(2) 후보자 출마

‘후보자로 출마’는 직접 정치인이 되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선거형 중 가장 적극적인 정치참여 방법이다.



국민의 이익을 약속하는 후보자

<그림 IV-3> 대한교과서 80쪽



후보자 합동 연설회
후보자들은 합동 연설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책이나 정견을 유권자에게 제시한다.

<그림 IV-4> 지학사 66쪽

후보자로 출마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4> ‘후보자로 출마’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선거형	후보자로 출마	3.4 (8)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후보자로 출마’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은 선거 때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당에 공식적으로 당원으로 입당하여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유권자의 활동

<그림 IV-5> 법문사 87쪽



자료 II-9
정당의 전당 대회 모습

<그림 IV-6> 대한교과서 80쪽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5>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선거형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	7.3 (17)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4) 공명선거 · 투표참여 캠페인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깨끗한 선거 문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며, 깨끗한 선거 문화는 유권자의 주인 의식이 깨어 있을 때 비로소 뿌리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도 정치참여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V-7> 법문사 68쪽



투표 참여 캠페인

<그림 IV-8> 지학사 63쪽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6>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선거형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	3.4 (8)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2) 접촉형

접촉형은 자기 자신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친구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단체에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 공무원, 언론사 등을 직접 접촉하는 정치참여 유형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선거, 정당으로 압축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들이 그 기능을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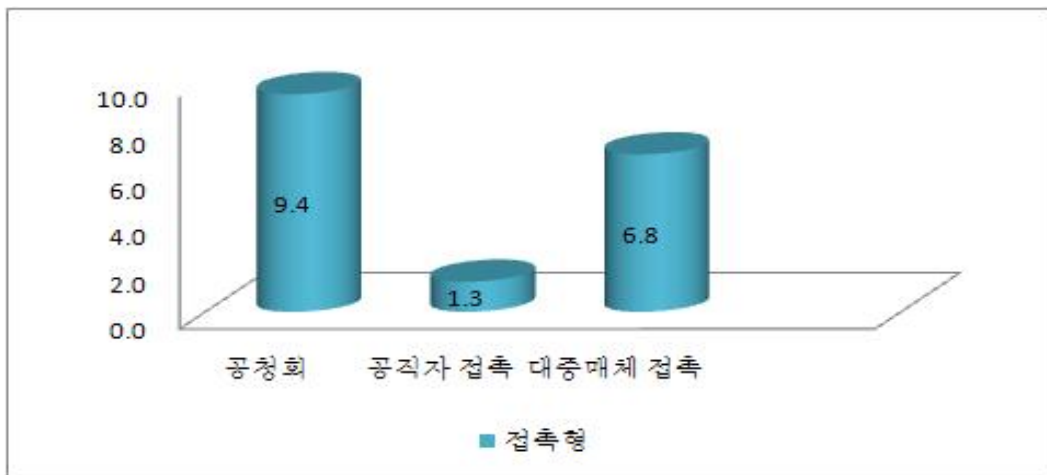
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적인 이익투사방식이나 대안적인 형태의 이익투사방식에 의거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주성수, 2007, p. 294)

접촉형을 <표 III-2-5>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7> '접촉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접촉형	공청회	9.4 (22)
	공직자 접촉	1.3 (3)
	대중매체 접촉	6.8 (16)
소계		17.5 (41)
총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그래프 IV-2-3> '접촉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단위:(%)

접촉형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방법 중 공청회가 전체 정치참여 삽화 수의 9.4%를, 공직자 접촉이 1.3%를, 대중매체 접촉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접촉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청회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직자 접촉과 7.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구성은 정치교과

서가 접촉형의 정치참여를 제시함에 있어 소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이 공직자와의 접촉을 통해 의견을 투입하는 삽화는 공직자들과의 거리감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비중으로 정치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1) 공청회

공청회란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기 위한 제도⁴⁾로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료 ① 공청회

<그림 IV-9> 천재교육 65쪽



국세청 개정에 관한 공청회

<그림 IV-10> 지학사 58쪽

공청회에 대한 교과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8> 공청회'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접촉형	공청회	9.4 (22)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4) www.naver.com 두산백과사전

‘공청회’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2) 공직자 접촉

공직자 접촉이란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를 직접 접촉하는 참여형태이다. 공직자 접촉은 정책 결정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입행위로, 시민이 자신의 요구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직자와 접촉하는 개인적 행위를 말한다. 시민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문제 예컨대 세금, 도로보수 또는 상하수도과 같은 각종 공공 서비스, 취학 등의 문제에 공직자와 접촉한다(유명철, 2007).



<그림 IV-11> 천재교육 164쪽



<그림 IV-12> 천재교육 66쪽

공직자 접촉에 대한 교과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9> ‘공직자 접촉’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접촉형	공직자 접촉	1.3 (3)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공직자 접촉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3) 대중매체 접촉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이해 관계를 해결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지지 및 비판하는 정치참여 방법으로, 기자회견이나 신문에 독자투고하기, 사이버 정치참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정치토론,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대화, 전자투표나 전자여론 수렴 등의 방법이 가능해지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대량의사 표출이 가능해지면서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평등성과 양방향성 덕분에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해 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림 IV-13> 천재교육 99쪽

번호	이름	내용	시간
1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은...	2008. 11. 01 11:01
2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을...	2008. 11. 01 11:01
3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을...	2008. 11. 01 11:01
4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을...	2008. 11. 01 11:01
5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을...	2008. 11. 01 11:01
6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을...	2008. 11. 01 11:01
7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을...	2008. 11. 01 11:01
8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을...	2008. 11. 01 11:01
9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을...	2008. 11. 01 11:01
10	김민준	새만금 관저사함을...	2008. 11. 01 11:01

인터넷 토론방

<그림 IV-14> 천재교육 99쪽

대중매체 접촉에 대한 교과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10> ‘대중매체 접촉’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접촉형	대중매체 접촉	6.8 (16)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대중매체 접촉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3) 항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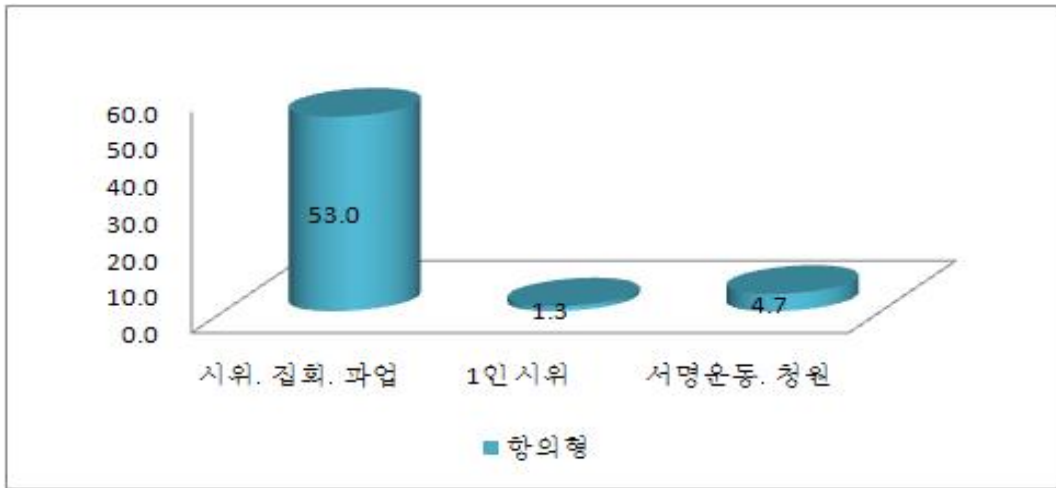
항의형은 시위, 집회, 파업, 서명운동, 청원 등과 같이 지지나 후원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불만을 노골적으로 정부당국에 거친 방법으로 전달하는 정치참여 유형으로 선거형과 접촉형의 연장이며 계속적인 형태로 이제 일상화된 정치참여가 되어 가고 있다(유명철, 2007). 더구나 신생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항의형의 정치참여는 잠재적으로 민주체제에 대한 위협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의형을 <표 III-2-5>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11> ‘항의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항의형	시위·집회·파업	53.0 (124)
	1인 시위	1.3 (3)
	서명운동·청원	4.7 (11)
	소계	59.0 (138)
	총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그래프 IV-2-4> ‘항의형’에 관한 삽화의 비율 *단위:(%)

항의형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방법 중 ‘시위·집회·파업’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53.0%를, ‘1인 시위’ 삽화는 1.3%를, ‘서명운동·청원’ 삽화는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위·집회·파업’ 삽화비율은 ‘1인 시위’ 삽화비율과 4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거나 불평·불만을 노골적으로 정부당국에 전달하는 항의형의 정치참여를 시위·집회·파업을 중심으로 인식할 위험성이 있다.

(1) 시위·집회·파업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말하고, 집회란 2인 이상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파업이란 어떤 요구가 충족될 때 까지 조합원이 단결하여 작업장에서 평상시 흐름을 저지시키며 작업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⁵⁾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거리에 나서서 피켓을 사용하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특정한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수인이 벌이는 집단행동이므로 함께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자료 ⑤ 평화적인 시위

<그림 IV-15> 천재교육 73쪽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

<그림 IV-16> 지학사 87쪽

시위·집회·파업에 관한 교과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12> ‘시위·집회·파업’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항의형	시위·집회·파업	53.0 (124)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시위·집회·파업’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53.0%를 차지하고 있다.

(2) 1인 시위

‘1인 시위’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지지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상

5) www.naver.com 두산백과사전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⁶⁾



1인 시위

<그림 IV-17> 대한교과서 71쪽



남개발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의 나무 위 1인 시위

<그림 IV-18> 지학사 91쪽

1인 시위에 대한 정치교과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13> ‘1인 시위’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항의형	1인 시위	1.3 (3)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1인 시위’ 삽화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3) 서명운동·청원

‘서명운동·청원’이란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인 서류로 만들어 해당 부처에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구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공식적인 서류로 정부당국에 진정하거나 호소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6) www.naver.com 두산백과사전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이해 관련자, 지지자, 후원자 등 다수의 서명을 받아 정부당국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을 호소한다.⁷⁾



서명 운동



인권 침해 진정서 접수

<그림 IV-19> 천재교육 64쪽

<그림 IV-20> 지학사 113쪽

서명운동·청원에 대한 정치교과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14> ‘서명운동·청원’에 관한 삽화의 비율

정치참여 유형	정치참여 방법	소계
항의형	서명운동·청원	4.7 (11)
	소계	(234)

* 단위: 백분율(%),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반올림, ()는 개수

‘서명운동·청원’ 삽화는 정치참여 삽화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7) www. naver.com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을 살펴본 결과, 선거형은 23.5%, 접촉형은 17.5%, 항의형은 59.0%로 정치교과서는 항의형 중심의 편향된 정치참여유형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정치적 태도형성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교육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참여를 항의형 중심으로 인식하게 하여 그 외의 정치참여유형은 부수적이거나 예외적인 참여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항의형은 정부나 기업 혹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 성격을 가지며 때로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항의형에 관한 정치참여 삽화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를 활성화 시키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선거는 대의 민주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참여 방법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투표율이 곧 정치참여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 투표권만을 행사하며, 그 이후에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소수정치가들과 참여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투표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선거참여와 더불어 비선거 참여인 접촉형과 항의형의 정치참여가 정부의 일상적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선거, 정당 등의 대의적 정치제도가 사람들의 이익을 결집하고 표출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의적인 수단을 통한 정치참여방법을 활용하는 빈도는 줄어드는 반면,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을 만나는 접촉형의 정치참여 빈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버바와 솔츠먼(Verba & Schlozman)은 미국에서 1967년과 1987년 사이에 접

축형의 정치참여 빈도는 두 배나 늘었다고 보고하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다른 어떤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보다 공공관료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주성수, 2007). 그리고 탈물질주의적 가치 부상이라는 정치 문화적 변동⁸⁾으로 선거참여라는 매우 기본적이고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참여유형 외에 보다 많은 자발적인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정치참여 유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김욱, 2007).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민주주의를 넘어 심화되기 위해 앞으로 민주 시민의 주역으로 성장 할 학생들에게 정치참여 유형을 다양하게 그리고 편중되지 않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각의 정치참여 유형을 살펴본 결과 선거형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방법 중 투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정치참여이므로 선거형의 정치참여 방법 중 투표에 관한 삽화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치인이 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을 하거나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열성적으로 정보의 전달, 선호의 표현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단순한 투표권의 행사차원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정치참여 방법이므로 정치교과서는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형의 다양한 정치참여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8) 기존의 유권자가 매우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데 반해, 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젊은 층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탈물질적 가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욕구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권위에 대한 비판 정신, 관용, 신뢰 등 민주주의 공고화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태도를 확산시킨다. 이러한 유권자의 가치 변화는 비단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현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완화와 세대 간 투표행태의 극심한 차이의 기저에는 탈물질주의 가치의 대두가 깔려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일부 젊은 유권자들이 보여 준 새로운 선거 운동방식 또한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김욱, 2007).

셋째, 접촉형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방법 중 공직자 접촉이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1.3%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시아바로미터 2006년 한국조사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의 접촉활동의 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정당인(정당의 당원이나 대의원들) 또는 선출직 공직자(단체장, 지방의원, 국회의원)를 접촉한 경우는 각각 9.7%, 11.0%인 반면 한번 이상 행정공무원에게 접촉한 응답자의 비율이 30.4%에 달하였다. 즉 정당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보다는 접근성이 높고 민원제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공무원을 통한 접촉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시민들이 접촉활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민원이 일반적으로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접근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교과서 분석결과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공직자 접촉 삽화 3개중 2개도 민원제기와 관련된 행정공무원을 접촉하는 삽화이며, 나머지 하나는 비대해진 행정 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서울시장과 직통전화'라는 삽화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교과서는 학생들이 공직자와의 접촉을 통해 의견을 투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치참여 방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늘려야 하며, 공직자 접촉 삽화를 제시함에 있어 행정공무원 중심이 아닌 정당인이나 선출직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는 삽화를 제시함으로써 이들 또한 시민이 의견을 투입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넷째, 항의형은 선거형과 접촉형의 연장이며 계속적인 형태로 이제 일상화된 정치참여 유형이 되어 가고 있지만, 선거형이나 접촉형에 비해 직접행동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과격한 민주화 시위나 노조 시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점차 정착되어가면서 민주화 이후 시위와 파업과 같은 항의형의 정치참여는 사양화⁹⁾되고 있다(박종민, 2008). 물론 이러한 항의형의 정치참여의

9) 아시아바로미터 2003년 한국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시위와 파업경험자는 불과 4.2%에 불과하였다. 이

감소는 소멸이 아니라 휴면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휴면화의 가능성은 항의형의 정치참여 경험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조사결과¹⁰⁾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의견상의 사양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참여방식이 필요하면 정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휴면화 되어 있을 뿐 소멸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치교과서는 지지나 후원보다는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불만을 노골적으로 정부당국에 전달하는 정치참여 유형인 항의형을 제시함에 있어 전체 정치참여 삽화 중 53%를 차지하는 ‘시위·집회·파업’ 삽화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들이 항의형의 정치참여 방법들을 다양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시위·집회·파업 중심이 아닌 1인 시위와 서명운동·청원 관련 삽화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는 1987년 시위참여 경험자 비율이 18%에 달하였을 때(박종민, 1994)와 극명하게 비교된다. 물론 조사 시기가 1987년 민주화 항쟁 직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여도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항의활동이 민주화 이후 사양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조사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신도철의 연구에 따르면 1994년, 1996년, 1999년에 시위경험자 비율이 8.7%, 7%, 2.3%로, 파업경험자 비율은 2.9%, 2.4%, 1.2%로 감소하고 있다(박종민, 2008).

10) 세계가치관 조사는 1981년 이후 응답자들에게 시위, 파업에 대한 “참여거부의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시위, 파업에 대한 참여 거부 의지는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졌던 1981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1년, 1990년, 1996년, 2000년 시위에 대한 참여거부의지는 각각 56.6%, 47.1%, 48.6%, 32.8%로 파업에 대한 참여거부의지는 각각 83.9%, 59.3%, 35.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박종민, 2008).

V.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치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4종의 정치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의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치참여 삽화의 수는 총234개로 대한교과서는 65개, 법문사는 31개, 천재교육은 71개, 지학사는 67개이다.

둘째, 정치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을 분석틀에 맞추어 각 정치참여유형별로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정치참여 삽화 234개 중 선거형이 23.5%, 접촉형이 17.5%, 항의형이 59.0%로 항의형 위주로 편향되게 정치참여 삽화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각각의 정치참여유형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방법을 분석틀에 따라 그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선거형을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투표’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9.4%, ‘후보자로 출마’는 3.4%,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은 7.3%,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은 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접촉형을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공청회’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9.4%를, ‘공직자 접촉’은 1.3%를, ‘대중매체 접촉’은 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항의형을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시위·집회·파업’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53.0%를, ‘1인 시위’는 1.3%를, ‘서명운동·청원’은 4.7%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는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해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정치참여는 사회의 공공문제에

관한 것으로, 시민들 스스로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참여이다.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 국민자치가 실현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 정치적 결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다양한 행동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은 정치 태도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치교과는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과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과목으로 정치참여를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은 편향되어 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 시민의 주역으로 성장 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참여 할 수 있도록 정치교과서는 정치참여 유형을 다양하게 그리고 편중되지 않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치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 유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제언

과거에는 정치과정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시민들의 의사는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반영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사회조직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정부 기관이나 의회만으로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게 되면서 시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행정기관도 이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참여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즉 오늘날 시민의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요청이자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과제로 이에 시민들은 의사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

음을 자각하고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정치참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체화된 참여의지와 능력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참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치참여교육 즉 입체적인 정치참여 교육이 필요하다.

입체적인 정치참여교육이란 참여의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듀이(Dewey)의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기초로 한다. 듀이에 의하면 반성적 사고는 인간이 환경과 주고받는 능동적인 상호작용인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식 획득 과정으로, 경험의 질적인 변화는 경험에 개입되는 사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며 누구나 삶 속에서 수시로 경험하고 있지만 반성적 사고에 의해 진행 될 때 최선의 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조선희 외, 1999).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기초로 한 입체적인 참여교육은 다섯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모호한 제안’로서 불확정한 상황에서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 의해 습득된 지식이나 습관에 의해 해결방안이 자동적으로 혹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느껴지는 곤란이나 혼란을 문제로 정의하는 ‘지적 정리’의 단계로서 문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관찰에 의해 확실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불확정적 상황은 탐구 과정에서 지적인 문제 상황이 된다. 즉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지면 탐구는 훨씬 수월해진다. 세 번째 단계로는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가설 설정’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로서 현재 제시된 것 또는 현재 제시되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하여 아이디어를 설정한다. 네 번째 단계는 떠오른 아이디어의 의미에서 ‘추론함’으로서 사고의 과정을 전개시키는 과정으로서 채택된 아이디어에 의해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주어진 증거와 관찰을 통해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는 제시된 아이디어의 거부 또는 수용을 결정하기 위해 실제에서 더 많은 관찰과 실험을 하고 그 타당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가설검증’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구체적인 혹

은 상징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험적 확증 혹은 진실 된 것의 증명을 제공한다.

이러한 5단계 수업방법은 지식위주의 참여교육이 아닌 학생들에게 왜 참여해야 하는지 동기를 분명히 가지게 하며, 어떤 정치참여 유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지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적활동이 될 수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를 일치시키는 것, 즉 시민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즉 민주정치는 시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정치참여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치참여유형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하며, 보다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참여교육 또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동근 외(1996). “선호강도와 비선거적 정치참여”. 『사회과학논총』. 제8호, pp. 175-199.
- 김 욱(2007). 『정치참여와 탈물질주의』. 집문당.
- _____(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선거Ⅲ』. 서울: 푸른길.
- 경지희(2006). “과학교과서 삽화의 종류와 역할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
- 박병석(2002). “한국의 공명선거와 정치교육”. 『정치정보연구』. pp. 87-117.
- 박종민(2008). “한국에서의 정치참여”, 『국가전략』. 제14권 4호, pp. 121-145.
- _____(1995). “정치참여의 사회심리적 조건”. 『한국정치학회보』. 29집 1호, pp. 377-396.
- _____(1994). “한국에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29집 1호. pp. 163-182.
- 박찬욱(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집 1호. pp. 147-193.
- 박희봉(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집 4호. pp. 545-575.
- 서현진(2005). “선거와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분석: 고등학교 사회 및 정치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7권 4호. pp. 73-94.
- 송경재(2005).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pp. 423-443.
- 신진 외(2005). “정치참여자들의 행태와 가치관 분석”. 『대한 정치학회

- 보』. 제12집 3호. pp. 283-303.
- 신 진(2004).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충남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공저(2006).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 이은경(2000).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성역할 내용 분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범(1997).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정치참여론”. 『사회과 교육학연구』 창간호. pp. 42-69.
- 이양수(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집 3호. pp. 25-43.
- 이양우(2005). “고등학생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종렬(1996). “정치교육 개혁과 시민교육 방향”.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사회와 교육. 23권. pp. 63-83.
- 이춘수(2003). “정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Vol.35 No.1. pp. 119-152.
- 유명철(2007).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인습적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른 참여방법지도”. 『중등교육연구』. 54집 3호. pp. 419-446.
- _____(2006).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비인습적 정치참여에 대한 내용 지도”. 『대한정치학회보』. 15집 2호. pp. 1-22.
- 유수경(2007).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활동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윤용탁(1997). “시민교육과 민주 그리고 통일”. 『민주시민교육논총』. 2권. 한국시민교육학회. pp 29-40.
- 어수영(1986). 『현대일본정치사』. 서울: 법문사
- 어수영·곽진영(2001).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pp. 320-410.

- 장민지(2005). “한국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정치참여론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선(2004). “서울시 집회 시위 발생 공간의 특성과 변화:1990~2003” 『지리학 연구』 . 38집 4호. pp. 447-460.
- 조선희 외(1999). 『철학적 탐구공동체 접근법-유아사고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창지사.
- 주성수(2007).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 도서출판 아르케.
- 최명구 · 김누리(2007). 『청소년의 이해』 . 학지사.
- 최진(2008). “사회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시민사회단체 활동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종식(1999). “자발적 청소년단체 활동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기범(2004).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삽화의 양성 평등 적합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치학회(2008).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정치과정』 . 법문사.
- 홍득표(2004). 『현대정치과정론』 . 한국학술정보(주).

<웹 사이트>

-두산백과사전, www.naver.com

-시사용어, www.naver.com

ABSTRACT

Analysis on Types of Civil's Political Participation in Illustrations in high school Politics Textbook

Jeon, Na Lyoung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focusing on analyzing civil's political participation types in textbook illustrations. Political participation as all actions for effecting on policy-decision of government is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nstruct students who will consist of the democratic citizenry in the future,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actively in political life. And, in order to enable adolescents to have balanced view of political participation types and to let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school education can be said to play a vital role, and among it, the textbook is a major material, very important for student's lesson activity. Particularly, because political participation is performance-based, there is a need for describing them through illustration rather than writing in words. It is because illustration's visual effects are huge in that it's no

wonder that students first look at the illustrations before the content when reading textbooks, and they tacitly influence students that much.

Therefore, the study explored types of civil's political participation (Campaigners, Contacters, Protesters) centering on textbook illustrations and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looking into the types of civil'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tudy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protesters was the highest. Among the total of 234 illustrations, protesters constituted 59.0%, campaigners constituted 23.5%, contacters constituted 17.5%.

The implications obtainable through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llustrations of type of civil's political participation are generally concentrated in protesters; and because of this, this may present an understanding to students that the type of civil's political participation are limited to protesters. Therefore, politic textbooks must endeavor to present a diversity of illustrations on the types of civil'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be improved not to overly concentrate on specific types.

Secondly, if we could upgrade the interest on politic as the activation of participation in process of high school education, they will be able to decide their opinions for oneself and do active participation civilians who have an ability as a democratic civilian in the 20s and 30s taking part in social life. we must educate various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ctivate solid participation education in civil education as a alternative to this.